

예술꽃*씨앗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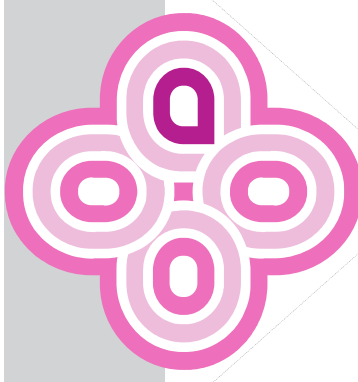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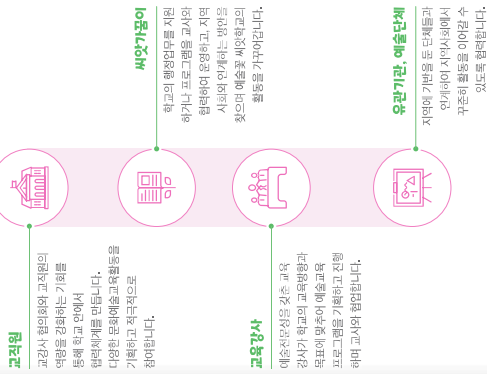
- 기초교육을 넘어 전문적인 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 학교의 학인과 관심을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방향을 고민하고 찾아냅니다.
- 예비과정에서부터 인사별교 맞추어 안정적인 활동 기반과 여건을 만들어 갑니다.
-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하여 행복하여 행복한 미술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예비과정이란?

학교 주도형
교사, 학이체, 교원 동아리를 구성하여 전문 지도자의 지원을 받아 교과과정과 연계한 프로젝트 및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운영하여, 교사 주도적으로 예술교육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획 및 역량을 강화합니다.



4년의 과정동안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 누구나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술꽃으로 피어나다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여 나누며 정학·학급(3~4학년도) 예술꽃 씨앗학교로서 자타평판을 하고 예술꽃 씨앗을 다양한 꽃으로 피우고 널리 퍼뜨립니다.

예술꽃 씨앗을 가꾸다



신탁교 진흥을 통해 학교별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확대하여 예술꽃 씨앗을 퍼뜨릴 수 있도록 가꾸어줍니다.

예술꽃 씨앗을 심다



문화예술교육의 취미나 이념이 아닌 시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하며 아이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예술꽃 씨앗을 심습니다.

예술꽃 텃밭을 다지다



문화예술교육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를 통하여 씨앗을 심기 위한 텃밭을 다집니다.

가꾸고 다듬는 과정을 매년 쌓아 일구어 갑니다



예술이 꽃피는 마을 - 미술축제형 성과공유회



예술가의 모습처럼, 창작과정 등을 경험으로 만들어 내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들의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 주민들과 함께 4년 동안 양차기 가꾼 예술꽃 씨앗의 학교별, 특화된 활동으로 꽃피워 나누며,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는 자리입니다.